

경남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Effect of Marital Interaction on the Marital Instability of
Foreign Wives in Gyeongnam

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김은경**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Changwon National Univ.

Professor : Kim, Eunkkyung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how marital interaction influences the marital instability of foreign wives. Data for the study were based on a snowball sampling of 101 foreign wives married to Korean husbands in Gyeongnam, Korea. The respondents reported higher levels of perceived spousal support, marital satisfaction, and sexual satisfaction, but reported lower levels of spousal hostility.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variables that affect marital instability.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d in the study were years married, religion, monthly income, educational level, perceived husband support, sexual satisfaction, marital satisfaction, and perceived husband hostility. While religion, educational level, sexual satisfaction, marital satisfaction, and perceived husband hostility had a strong effects on the marital instability of foreign wives, years of marriage, monthly income, and perceived husband support did not show significant effect on marital instability. Marital satisfaction had the strongest effect on marital instability.

▲주요어(Key Words) : 결혼불안정(marital instability), 여성결혼이민자(foreign wives), 부부 상호작용(marital interaction), 결혼만족도 (marital satisfaction)

I. 서 론

세계화의 추세와 함께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 사이에 물적·인적자원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일시적 방문객 뿐 아니라 장기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이주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2009년 5월을 기준으로 110만 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09). 이는 2006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외국인 주민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이주 노동자의 유입과 결혼의 세계화로 요약될 수 있다. 노동력의 이동은 세계화의 추세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으로 경제적 낙후지역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노동력의 이동과정은 국제결혼의 역사와 궤적을 같이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의 여성화가 지배적인 추세이다(박재규, 2007).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2008년 총 혼인 중 국제결혼의 비율이 11%였는데, 이 중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77.8%를 차지하였다(통계청, 2008a).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 5월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 이 논문은 2009~2010년도 창원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 교신저자 : 김은경 (E-mail : Eunkkyung@changwon.ac.kr)

수는 110,483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0%에 달한다(통계청, 2009a).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2005년 전체 혼인의 9.8%로 최고치에 달한 후 방문취업제와 베트남의 국제결혼 규제정책의 강화 등의 영향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여성의 결혼관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지역 간의 성비불균형에 따른 농촌 노총각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유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적응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김경신, 2009; 박재규, 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주목할 현상은 이들의 혼인건수 뿐 아니라 이혼건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통계가 처음 나온 2002년에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이혼 건수는 380건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7,962건으로 7년 사이에 21배나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이혼의 9.7%를 차지하였다(통계청, 2009a). 같은 기간 동안 내국인 부부의 이혼건수가 19.6% 줄어든 것이나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이혼건수가 2.6배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결혼적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9b).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이혼율의 급증은 국제결혼이 증가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이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재규, 2007).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대부분의 경우 한 두 번의 짧은 만남을 통해 성사되기 때문에 서로의 출신국 문화나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뿐 아니라 결혼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김은경, 2008; 박재규, 2007). 또한 결혼의 과정에 결혼중개업체 등 특정집단이 개입되어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거나 왜곡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국제결혼의 경우 매매혼의 성격을 띠는 것 등으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결혼생활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박정민, 2009; 양철호 등, 2003). 결혼과정에서의 문제 뿐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결혼 후 가족관계에서 갈등이 심화될 경우 이를 극복할만한 자원이나 사회적인 지지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국제결혼 부부 그 중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급속한 이혼의 증가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에 누적되어 왔던 국내생활이나 결혼생활 적응의 실패에 대한 결과가 표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박재규, 2007).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급속한 결혼해체는 특별한 지원이 없이 방치된다면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까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혼실패에 따른 추방이나 불법체류의 두려움 때문에 어려운 결혼생활을 참고 견뎠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여성결혼이민자

들의 생존권 및 인권이 강화되면서 이혼의사를 가진 여성들의 경우 바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박재규, 2007). 이혼은 이혼 당사자에게 다양한 종류의 역기능과 정신병리적 문제를 유발하고, 자녀들에게도 문제행동의 증가나 학업성취에서의 문제와 같은 단기적인 문제 뿐 아니라 이혼의 증가와 같은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높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문제로 국제결혼의 불안정성은 다문화사회로의 안정된 정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김영희, 1999; 김태현 · 이성희, 1989; 조성희, 1999; 최선희 · 전명희, 1999; Cooney, 1994; Hahlweg & Richter, 2010; Keith & Finlay, 1988). 때문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부부생활적응의 문제와 이혼의 증가를 개인의 책임이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행위로 보고 이들의 결혼적응을 돋고, 적절한 예방을 통해 결혼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대처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김경신, 2009).

현대사회의 부부는 애정을 기본여건으로 형성되고 이는 결혼생활의 유대를 강하게 함과 동시에 결혼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있다(이효재, 1976). 조성희(1999)의 연구에 의하면 직접적인 가족해체의 원인은 다른 외부적인 요인보다 부부관계의 불안정성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Broman(2002)도 결혼생활동안 이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수록 실제로 이혼을 많이 한다고 밝히면서 이혼에 대한 생각이 이혼의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결혼불안정이 이혼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부간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결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범인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이병일, 2007).

결혼불안정성은 결혼안정성과 같은 차원의 다른 극단에 있는 개념으로 '이혼이나 별거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부부 일방이나 쌍방이 결혼을 해체하고자 하는 정서적, 행동적 및 인지적 성향'으로 정의되는데(Booth et al., 1983), 결혼불안정성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이 결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이나 근원가족의 영향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최근으로 올수록 배우자간의 상호작용이 결혼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혼불안정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결혼의 성패요인인 부부가 교환하는 상호작용 행동이 결혼생활에 있어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의 해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결혼불안정성과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이혼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현은민, 2007; Gottman, 1994; Matthews et al., 1996). 선행연구들은 결혼생활은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공존하기 때문에 부부의 결혼안정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상호작용의 영역으로 긍정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행위인 적대적 행동도 포함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장춘미, 2001; 현은민, 2007; Abby et al., 1985; Gottman, 1994; Gudmunson et al., 2007; Manne & Zautra, 1989).

부부간 상호작용요인과 결혼불안정성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결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변인들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변인으로는 배우자의 지지, 성생활 만족도, 결혼만족도가 있으며 부정적인 상호작용 변인으로는 배우자의 적대적 행동이 있다. 결혼만족도는 결혼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며, 다른 여러 변인 중에서 결혼만족도만이 남녀에 상관없이 일관성있게 결혼불안정성과 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득성, 1994; 박재규, 2007; 이경성 · 한덕웅, 2001; 최연실 · 옥선화, 1987; Booth & White, 1980). 부부간의 성생활만족도와 결혼의 불안정성은 강한 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Edwards & Booth, 1994; Hsiu-Chen, Yeh et al., 2006; Oggins et al., 1993; Veroff et al., 1995; White & Keith, 1990), 현경자(2005)는 성생활에 대한 배우자와의 갈등은 남성들의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과는 상관이 없지만 여성들의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서 여성들의 경우 성생활을 통해 배우자와 조화를 이룰 수록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결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밝혀졌지만, 남편과 아내의 결혼불안정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일치하지 않는다. 부부간 상호작용 변인 중 긍정적 상호작용 변인과 부정적 상호작용 변인을 포함시켜 결혼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Conger와 동료들(1990)에 의하면 남편의 지지는 아내의 결혼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남편의 적대감은 아내의 결혼불안정성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서구의 결과와는 달리 기혼남성과 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결혼불안정성을 연구한 현은민(200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과 남성 모두 배우자의 적대행동에 대한 지각이 결혼불안정성에 가장 강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지지행동에 대한 지각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간 상호작용이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진행 된 연구들은 초기의 생활실태나 적응,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이들의 부부관계에 관한 연구가 소수 이루어지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를 조사한 대부분의 연구는 부부간의 갈등(김오남, 2006a; 김오남, 2006b; 신경희 · 양성은, 2006; 최연실 등, 2007; 홍달아기 · 채옥희, 2007)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었고, 최근에 결혼만족도(김은경, 2008; 양순미 · 정현숙, 2006; 양점도 · 김춘택, 2006; 이무영 · 강기정, 2007; 최경숙, 2006)와 관련된 몇몇 연구가 실시되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혼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결혼불안정성에 관한 연구는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과 결혼안정성을 다룬 논문(김두섭 · 이명진, 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을 연구한 논문(서해정 · 김형모, 2009)과 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박재규, 2007) 등 소수에 불과하며, 결혼불안정성의 성폐요인으로 결혼불안정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부 상호작용과 결혼불안정성의 관계를 다룬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이혼을 줄이고 적절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경남 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여성들이 지각하는 부부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부부간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이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결혼안정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부부 상호작용과 결혼불안정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변인, 부부 상호작용변인과 결혼불안정성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부부 상호작용 변인의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외국 여성 중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경남에 거주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101명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참여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들은 눈덩이표집법을 사용하여 모집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여성결혼이민자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사회단체, 복지관과 원어민을 고용하는 방문어학 학습 교육기관의 협조를 얻어 한글교실, 요리교실, 방문한글교실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자와 방문어학 학습교사로 참여하고 있는 여성결혼자 중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여성들이다.

2007년 8월 13일부터 8월 29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7년 9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원으로는 연구자 본인, 사전교육을 받은 학부생들과 어학연수와 해외유학의

경험이 있는 졸업생들이 참여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상호작용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결과 관련변인으로 밝혀진 총 8개의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사회경제적 변인과 배우자 상호작용 변인은 각각 4개이며 결혼불안정성이 종속변인으로 사용되었다.

1) 사회경제적 변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 결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진 결혼년수, 종교유무, 월소득과 학력을 포함하였다. 네 변수는 모두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 부부 상호작용 변인

부부 상호작용 변인은 4개인데 긍정적 상호작용변인인 남편의 지지, 성생활만족도, 결혼만족도와 부정적 상호작용 변인인 적대적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편의 지지 척도는 박유신(1999)과 현은민(2007)의 연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남편의 지지는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는지, 자녀양육을 도와주는지 남편이 위안이 되는지, 남편이 자신을 믿고 이해하는지, 그리고 고민상대가 되는지의 5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정말 그렇다'의 5단계로 측정하였고, 높은 점수는 남편의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성생활만족도는 남편과의 성생활에 만족하는지를 묻는 단일문항으로 1점(매우 불만족하다)에서 5점(매우 만족스럽다)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결혼만족도는 결혼 및 배우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을 묻는 Bahr 등(1983)과 Snyder(1979)를 참고하여 만든 9개 문항으로 구성된 이정연(1987)의 결혼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정말 그렇다)의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높은 점수는 높은 결혼만족도를 의미한다. 결혼만족도 척도에 대한 Cronbach's α 는 .84였다.

배우자의 적대행동은 자신에 대한 배우자의 불평이나 비난, 무관심, 무시, 폭행, 친정식구에 대한 무시 등의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우자의 적대적 행동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적대적 행동이 높음을 의미하고, 신뢰도 계수는 .83이다.

3) 결혼불안정성

본 연구에서는 Booth 등(1983)의 주장과 같이 결혼불안정성을 이혼이나 결혼의 해체라는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을지라도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현재의 결혼을 해체하고자 하는

이혼경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결혼불안정성척도는 Edwards 등(1987)의 Marital Instability Index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결혼불안정성의 합계범위는 4~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의 불안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값은 .64로 높은 신뢰도 수준은 아니나 .60 이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김기원, 2007).

3. 자료분석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3단계로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변인을 빈도와 백분율을 통해 파악하였고, 2단계에서는 연구에 포함된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부 상호작용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학적 배경

연구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여성들의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중국여성이 3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24.8%), 필리핀(21.8%)의 순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은 21세부터 48세까지였으며, 30~39세가 45.5%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32.2세였다.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199만원이 46.6%로 가장 많았고, 99만 원 이하도 3%가 있어서 연구 참여자의 반 이상이 월소득 200만 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수준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49.6%였으며 중졸이하도 14.9%였다. 배우자와의 학력차이는 남편의 학력이 더 낮다고 응답한 여성이 40.8%, 남편과 학력이 같은 여성도 40.8%였고, 부인에 비해 남편이 학력이 높은 경우는 18.4%에 불과하였다. 결혼년수는 1년~5년이 43.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이 5년~10년 미만으로 27.7%였으며, 평균 결혼기간은 67.2개월이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여성은 69.3%였으며, 종교가 없는 여성은 30.7%였다. 자녀는 1명을 가진 여성은 45.5%로 가장 많았고, 2명 이상인 여성은 33.6%였으며, 자녀가 없는 여성은 20.8%가 있었다.

2. 배우자와의 상호작용과 결혼불안정성

여성결혼이민자와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표 1>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 인	구 分	n(%)
출신국가	중 국	33(32.7%)
	베트남	25(24.8%)
	필리핀	22(21.8%)
	일 본	15(14.9%)
	기 타	6(6.0%)
연 령	20~29	38(37.6%)
	30~39	46(45.5%)
	40세 이상	17(16.8%)
가계 월소득	99만원 이하	3(3.0%)
	100~199만원	48(46.6%)
	200~299만원	31(30.7%)
	300만원 이상	14(13.9%)
학 력	초등학교 졸업	3(3.0%)
	중학교 졸업	11(11.9%)
	고등학교 졸업	34(33.7%)
	전문대/대학교졸업 이상	50(49.6%)
	기 타	3(3.0%)
학력차이	남편이 학력 낮음	40(40.8%)
	부부 학력이 같음	40(40.8%)
	남편의 학력이 높음	18(18.4%)
결혼년수	1년 미만	8(7.9%)
	1~5년 미만	44(43.6%)
	5~10년 미만	28(27.7%)
	10년 이상	21(20.8%)
종교유무	종교 있음	71(69.3%)
	종교 없음	31(30.7%)
자녀수	없 음	21(20.8%)
	1명	46(45.5%)
	2명	26(25.7%)
	3명 이상	8(7.9%)

<표 2> 배우자와의 상호작용 요인과 결혼불안정성

문항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SD
남편의 지지	5문항	5	25	18.30
성생활만족도	1문항	1	5	3.83
결혼만족도	9문항	15	45	34.27
적대적 행동	13문항	13	52	25.06
결혼불안정성	4문항	4	8	4.60

여성결혼이민자가 응답한 남편의 지지는 평균 18.3점으로 중앙치인 15점(최대:25, 최소:5)보다 높아 여성들이 지각하는 남편의 지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남편의 지지를 구성하는 5문항 중 남편이 집안일(51.5%)이나 자녀를 돌보는 일(56.5%)에 참여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여성들은 남편이 자신을 믿고 이해하며(78%) 남편이 자신에게 많은 위안이 된다(74%)고 응답하여 배우자로부터 많은 위안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자신 또한 배우자에게 많은 위안과

지지가 된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와의 성생활만족도는 평균 3.83으로 '3' 보통이다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서 연구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배우자와의 성생활에 대해 보통 이상의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지지에 대한 지각과 성생활만족도가 높은 것과 일관되게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 점수 또한 평균 34.27로 중앙치인 27점(최대:45, 최소: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남편의 적대적 행동은 평균 25.06으로 중앙치인

39점(최대:65, 최소:13)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의 적대적 행동을 측정한 13항목 중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20%를 넘는 항목은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 불일치(22.1%) 밖에 없었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항목이 남편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음(15.9%), 사사건건 의견 불일치(14.9%), 금전을 둘러싼 갈등 및 다툼(14.8%)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그 비율이 매우 낮아서 연구 참여자들이 배우자의 적대적 행동을 매우 낮게 지각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불안정성은 평균 4.60으로 최소값에 근접하여 중앙치인 6점(최대:8, 최소:4)에 비할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의 결혼불안정성 또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와의 상호작용과 결혼불안정성의 분석결과 여성들은 배우자로부터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배우자와의 성생활과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반면 배우자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지각과 결혼불안정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결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용된 독립 변수는 사회경제적 변수인 결혼년수, 종교유무, 월소득, 학력과 배우자간의 상호작용 변수인 남편의 지지, 성생활만족도, 결혼만족도와 적대적 행동의 8개이다. 사회경제적 변인 중 결혼년수는 종교유무, 학력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배우자 상호작용 요인 중 남편의 지지도와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즉 결혼년수가 긴 여성들이 종교(r=.26, p<.01) 가지고 있었고 학력(r=.27, p<.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년수가 길수록 남편의 지지(r=-.24, p<.05)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년수와 종교유무의 상관관계는 결혼년수 뿐 아니라 여성들의 결혼동기와 남편을 만나게 된 경로와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즉 결혼생활이 8년 이상이 되어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든 여성들의 경우 종교 때문에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로 결혼년수 7년 이하 여성들의 28.5%에 비해 훨씬 높은데 반해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여성은 28.6%로 결혼년수가 짧은 여성들의 응답율 6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결혼기간 8년 이상의 여성들의 57.2%가 종교단체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반면 결혼년수가 7년 이하의 경우 종교단체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여성이 9.1%에 불과하고, 아는 사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난 여성이 43.9%,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배우자를 만났다는 여성이 22.2%인 것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의 역사가 종교단체를 통한 국제결혼에서부터 시작된 것과 최근 들어 결혼중개업체의 상업화로 인해 급속하게 증가된 것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배우자와의 상호작용 관련 변인들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즉 남편의 지지는 성생활만족도($r=.34$, $p<.01$) 및 결혼만족도($r=.54$, $p<.001$)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드러났고, 적대적 행동과 남편의 지지($r=-.56$, $p<.001$), 성생활만족도($r=-.31$, $p<.01$) 및 결혼만족도($r=-.52$, $p<.001$)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편의 지지가 높을수록 성생활만족도와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배우자의 적대적 행위에 대한 지각을 높게 할 수록 남편의 지지도 낮게 지각하며 성생활만족도와 결혼만족도도 낮음을 알 수 있다.

연구에 포함된 독립변수들과 결혼불안정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결혼불안정성은 종교유무($r=-.27$, $p<.01$), 남편의 지지($r=-.49$, $p<.001$), 성생활만족도($r=-.33$, $p<.01$) 및 결혼만족도($r=-.62$, $p>.001$)와 강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학력($r=.26$, $p<.01$)과 적대적 행동($r=.46$, $p<.001$)과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연구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종교가 있고 남편의 지지가 높으며 성생활만족도와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불안정성은 낮으나 학력이 높고, 남편의 적대적 행동을 높게 지각할수록 결혼불안정성은 높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3>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결혼년수								
2. 종교유무*	.26**							
3. 월소득	-.01	-.10						
4. 학력	.27**	-.02	.26**					
5. 남편의 지지	-.24*	.02	.03	-.23*				
6. 성생활만족도	-.17	-.13	.17	.06	.34**			
7. 결혼만족도	-.16	.19	.15	-.14	.54***	.45***		
8. 적대적 행동	.15	.07	-.09	.17	-.56***	-.31**	-.52***	
9. 결혼불안정성	.08	-.27**	.03	.26**	-.49***	-.33**	-.62***	.46***

* $p<.05$, ** $p<.01$, *** $p<.001$, † 종교유무: 0=종교없음, 1=종교있음.

<표 4>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인	모델1 사회경제적 변인		모델2 배우자 상호작용 변인	
	β	SE	β	SE
결혼년수	.05	.03	-.10	.02
종교유무	-.31 **	.24	-.23 **	.19
월소득	-.03	.08	.11	.06
학력	.30 **	.07	.20 *	.06
남편의 지지	-	-	-.13	.02
성생활만족도	-	-	-.18 *	.08
결혼만족도	-	-	-.32 **	.02
적대적 행동	-	-	.22 *	.01
R ²		.18		.58
F-value		4.17 **		12.58 ***

*p<.05, **p<.01, ^{*}종교유무: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사회경제적 변수 간에는 모두 .50 미만이었으나 배우자 상호작용 요인 중 남편의 지지, 결혼만족도 그리고 적대적 행동간의 상관관계가 .50이 넘어서 (-.56~.54)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를 분산팽창계수(VIF) 값을 통해 파악하였다.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시 분산팽창계수(VIF) 값이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말하나(박성현, 1989), 본 연구의 분석 결과 VIF 수치가 1.06에서 2.09로 나타나 다중공선성과 관련된 결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결혼불안정성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부부 상호작용 요인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사회경제적 변인들을 독립변인(모델 1)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설명력을 파악하였다. 다음 단계에서 독립변인에 배우자와의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여(모델 2) 부부 상호작용 변인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불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사회경제적 변인만이 포함된 모델1에서는 종교유무($\beta=-.31$, $p<.01$)와 학력($\beta=.30$, $p<.01$)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이 모델의 결혼불안정성에 대한 설명력은 18%였다. 즉, 종교가 없고, 학력이 높은 여성들의 결혼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모델2는 부부 상호작용 변인을 포함한 분석모델로 이를 통해 부부 상호작용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모델 1에 부부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종교유무($\beta=-.23$, $p<.05$)와 학력($\beta=.20$, $p<.05$)의 영향력은 약해졌으나 결혼불안전성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성생활만족도($\beta=-.18$, $p<.05$), 결혼

만족도($\beta=-.32$, $p<.001$)와 적대적 행동($\beta=.22$, $p<.05$)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고 학력이 높은 여성이 그리고 성생활만족도와 결혼만족도가 낮고, 배우자의 적대적 행동을 높게 지각한 여성이 결혼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인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40% 가 증가한 58%의 설명력을 보여 사회경제적 변인만이 포함되었을 때 보다 설명력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F-value도 유의미하게 증가하여($F=4.17$, $p<.01$ 에서 $F=12.58$, $p<.001$ 로) 부부 상호작용 변인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불안정성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부부 상호작용 변인 중 긍정적인 상호작용 요인인 결혼만족도($\beta=-.32$, $p<.001$)가 부정적 상호작용 변인인 적대적 행동($\beta=.24$, $p<.05$)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결혼불안정성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예상과는 달리 결혼년수, 월소득과 남편의 지지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사회경제적 요인과 배우자와의 상호작용 요인이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경남거주 중소도시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배우자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상당히 높은데 반해 배우자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상호작용 요인인 남편의 지지(평균=18.30, 중앙치=15), 성생활만족도(평균=3.83, 중앙치=3)와 결혼만족도(평균

=34.27, 중앙치=27)는 중앙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부정적 상호작용 요인인 남편의 적대적 행동(평균=25.06, 중앙치=39)은 중앙치 이하로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각하는 남편으로부터의 지지와 성생활만족도 및 결혼만족도는 높고 남편의 적대적 행동은 낮아서 연구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생활에 전반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에(복수응답) 대해 88%의 여성이 남편이라고 응답한 것이나 가족 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남편이라고 응답한 여성이 66.3%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생활에 전반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응답(88.1%)은 두 번째 순위인 모국인 친구나 이웃의 44.6%에 비교할 때 두 배 가까이 높았으며, 자녀가 없는 여성의 85.7%와 자녀가 있는 여성의 61.3%가 배우자를 자신의 가족 중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결혼을 통해 낯선 땅인 한국에 이주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남편이 배우자로서의 의미 이상으로 자신의 한국생활의 정착을 돋는 중요한 사람이며 때문에 이들이 배우자인 남편을 가족 중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식하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감을 조사한 김연수(2007)의 연구결과나 결혼이민자 1,177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 설동훈 외(2006)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우리 사회가 국제결혼을 부정적이고 문제가 내재되어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편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 나타난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Heller & Wood(2000)가 제시한 국제결혼을 한 부부들은 이미 결혼 전 자신들의 결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차이점을 탐구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 더 강한 친밀감과 상호 이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우자와의 높은 상호작용의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현재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들이고 한글교육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등 지역사회의 자원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여성들로 한정되었으며,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에 속한 여성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기인할 수도 있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불안정성(평균 =4.60, 중앙치=6.0)은 중앙치 이하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 중 타인에게 결혼의 문제점을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56.4%였고, 심각하게 이혼이나 별거를 고려해 본 사람이 19.8%였다.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해 본 적이 있는 여성도 11.9%(12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혼을 원

함에도 이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때문(75%)'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이혼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녀 때문이라는 응답에도 불구하고 자녀유무($r=.09$)나 자녀의 수 ($r=.07$)는 결혼불안정과 상관관계가 매우 낮게 나타나서 이혼을 원하는 여성들이 자녀 때문에 이혼을 하지는 못하지만 자녀의 유무나 자녀의 수가 여성들이 결혼을 후회하며 문제가 있다고 느껴 이혼이나 별거를 고려하는 경향 자체와는 관련을 갖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변인 중에서는 종교유무와 학력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불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와 학력은 배우자 상호작용 변인이 분석에 투입된 후 영향력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연구 참여자의 결혼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 응답자의 37%가 종교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고, 32.7%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나 모임으로 종교단체 모임을 들었으며, 종교단체 성직자나 교우가 생활의 전반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응답한 여성도 13.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 불화 시에 종교단체 성직자나 교우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여성도 13.4%나 되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신앙심을 통해 자신의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측면 이외에 낯선 이국땅에서 삶에 필요한 다양한 도움과 지원을 종교단체를 통해 받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종교는 단순한 신앙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필요시에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적 자원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종교유무가 여성들의 결혼불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부관계 향상 교육 등 다양한 가족생활교육의 실시를 종교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력이 결혼불안정성에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김태현·이성희(1989)의 결과나 학력이 결혼불안정성과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다른 선행연구들의 결과(Bumpass et al., 1991; Larson & Holman, 1994)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학력($\beta=.20$, $p<.05$)이 결혼불안정성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학력이 높은 여성들이 결혼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학력과 취업유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중졸 이하의 여성들은 21.4%, 고졸 이하의 여성들은 23.5%만이 취업을 해 있는 반면 대졸 이상의 여성들은 50%가 취업을 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서 학력에 따라 취업유무($\chi^2=7.75$, $p<.05$)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여성들의 학력은 출신국가와도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의 68%가 일본과 필리핀 출신으로 방과 후 학습이나 영어학원 강사로 취업을 하는 것이 가

능한 여성들이었다. 즉 연구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 중 학력이 높은 여성들은 취업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 이들의 경우 배우자에 의존을 하지 않고도 자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결혼불안정성이 높을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월소득은 결혼불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의 수입이 이혼의 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Zimmer(2001)의 연구결과나 수입 자체나 수입에 대한 평가가 이혼에 대한 고려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Booth & White(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경제적 긴장이 남편에게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자괴감과 경제적 중압감을 주어 아내의 상호작용 행동 보다는 남편의 배우자간 상호작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서도 설명 할 수 있다(이민경, 2000; Elder et al., 1992; Liem & Liem, 1988).

넷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결혼불안정성에는 사회경제적 요인보다 배우자간의 상호작용 변인이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변인만을 포함한 모델의 설명력이 18%였던데 반해 배우자 상호작용 변인을 포함한 모델의 결혼불안정성 설명력은 58%로 사회경제적 변인만을 포함한 모델에 비해 설명력이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Conger와 동료들(1990)의 연구결과에서 남편에 대한 적대감, 결혼의 질, 그리고 남편의 따뜻함의 세 변인이 아내의 결혼불안정성을 51%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결혼만족도는 배우자간의 상호작용 변인들 뿐 아니라 연구에 포함된 8개의 변인 중에서 결혼안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결혼만족도와 결혼불안정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관된 것으로 결혼생활에서의 만족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 됨을 의미한다(최연실·옥선화, 1987; Booth & White, 1980; Spanier, 1976, Zimmer, 2001). 때문에 연령과 학력에서 이질혼의 경향이 높고, 의사소통의 불편함이나 생활문화 및 가치관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국제결혼 부부가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나 행복에 결혼생활교육의 참여(양순미, 2007), 부부동반 교육참여(김은경, 2008), 남편과의 여가시간 공유나 남편이 아내의 모국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김연수, 2007)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부관계 개선 및 강화를 위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과 아내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결혼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결혼불안정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성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불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생활에 대한 배우자와의 갈등이 여성들의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을 위협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현경자(2005)의 연구결과와 성생활만족도가 부부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적 경험일 뿐 아니라 보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시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Karney & Bradbury, 1995; Sprecher & Cate 2004).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 부부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와 기대치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신이 느끼는 성문제를 부부간 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자기 표현 및 의사소통 방식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실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현경자, 2005).

일곱째, 배우자의 지지가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불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배우자의 적대적 행동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불안정성과 강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배우자의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배우자의 적대감은 결혼불안정성과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 Lorenz 등(2001)의 연구결과를 통해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결혼에 대한 만족의 감정은 배우자의 애정행위, 도움이나 관심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반면 배우자의 적대적인 행위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을 용이하게 하고 미래의 이혼을 고려하게 하는 위협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결과는 Roberts(2000)가 남편과 아내의 적대적 행동과 거리를 두는 행동을 연구한 결과 아내들의 경우 남편의 적대적인 행동 때문에 결혼생활에서 고통을 받는 반면 남편들의 경우 아내의 거리를 둔 행동에서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배우자의 적대적 행위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결혼불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부부교육을 통해 배우자의 적대적인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하고 배우자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기 표현이나 대화의 기술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부부간의 상호지지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부부관계를 강화시켜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해체를 막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현은민, 2007).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 대상자를 모집할 때 정확한 표집틀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무작위표집과 같은 표집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여 한글교육에 참여하거나 방문 어학교사나 외국인 강사와 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성들을 접촉하여 유의표집을 하였고 이들을 통해 다른 여성이민자를 소개받은 눈덩이 표집을 통해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이 같은 표집방법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어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가장 취약계층에 속하는 여성이민자들이 연구에 포함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한계와 연구집단의 대표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관계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탐색적 연구를 위해 영어나 한글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여성들에 국한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일반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 뿐 아니라 이들의 배우자인 남편들이 지각하는 부부 상호작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나 본 연구는 부부 중 한 쪽인 여성만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여 확률표집에 근거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여성결혼이민자 뿐 아니라 이들의 배우자를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입장에서 뿐 아니라 배우자인 남편의 입장에서도 부부간의 상호작용과 결혼불안정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제기된다.

【참 고 문 헌】

- 김기원(2007). 사회복지조사론. 서울: 나눔의 집.
- 김경신(2009). 다문화가족 사업 평가 및 정책 대안. 2009 한국 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9-40.
- 김두섭·이명진(2007).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 성과 결혼안정성. *한국인구학*, 30(3), 33-56.
- 김득성(1994). 결혼초기 결혼만족도와 결혼 안정성간의 관계: 사회교환이론적 접근. *가정대학 연구보고*, 20, 25-34.
- 김연수(2007).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 217-252.
- 김영희(1999). 결혼의 질과 안정성: 이론적 모델의 검증. *대한 가정학회지*, 37(6), 1-42.
- 김오남(2006a).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06.
- 김오남(2006b). 여성결혼이민자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가족복지학*, 18, 33-76.
- 김유경(2005). 가족원 특성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체계. *보건복지포럼*, 103, 47-72.
- 김은경(2008). 중소도시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83-94.
- 김태현·이성희(1989). 도시 주부의 결혼불안정성에 관한 일연구. *생활문화연구*, 3, 211-229.
- 박유신(1999). 기혼남성의 경제적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비난 행동 지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박재규(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427-442.
- 박정민(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 관한 연구. *대구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찬미·서병숙(1987).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와 이혼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145-162.
- 서해정·김형모(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의 질과 결혼 안정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359-389.
- 설동훈·이혜경·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 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신경희·양성은(2006).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5), 1-8.
- 양순미·정현숙(2006). 농촌국제결혼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223-252.
- 양순미(2007).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행복에 관련변인이 미치는 효과. *한국농촌사회학회*, 17(2), 1-24.
- 양점도·김춘택(2006). 농촌 외국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복지행정논총*, 16(1), 1-20.
- 양철호·김영자·손순용·양선희·신봉관·조지현(2003).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광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6(6), 127-149.
- 이경성·한덕웅(2001).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행동의 귀인이 결혼만족과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5(2), 41-64.
- 이무영·강기정(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및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현실요법 집단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2(2), 29-44.
- 이민경(2000). 실직남편의 스트레스와 아내구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병일(2007). 결혼불안정성과 관련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효재(1976). 가족과 사회. 서울: 경문사.
- 장춘미(2001).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혜정(2002). 학대경험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에 관한 연구. *대학가정학회지*, 40(9), 33-40.
- 조성희(1999). 실직가장이 인식하는 가족해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13, 139-166.
- 최경숙(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선희·전명희(1999). 우리나라 부부갈등과 부부관계 유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8(9), 284~308.
- 최연실·옥선희(1987).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83-97.

- 최연실 · 권용혁 · 김태성 · 우실하(2007). 한 · 중 국제결혼에서 갈등과 적응: '소외'와 '타자화'의 체험에서 '소통'과 '화합'의 모색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251-299.
- 최재석(1982). *현대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통계청(2009a). 2008 이혼통계.
- 통계청(2009b). 2008 혼인통계.
- 행정안전부(2009). 200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 결과.
- 현경자(2005). 결혼의 질과 안정을 저해하는 부부갈등 영역.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1, 158-193.
- 현은민(2007). 경제적 스트레스와 결혼불안정성과의 관계: 부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45-58.
- 홍달아기 · 채옥희(2007). 국제결혼부부의 가치관 및 의사소통 유형과 갈등과의 관계. *한국생활고학회지*, 16(4), 733-744.
- Abby, A., Abramis, D. J., & Caplan, R. D.(1985). Effects of different source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conflict on emotional well-being.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6, 111-129.
- Bahr, S., Chappell, C. B., & Leigh, G. K.(1983). Age at marriage, role enactment, role consensus,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4), 795-803.
- Booth, A., & White, L.(1980). Thinking about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605-616.
- Booth, A., Johnson, D., & Edwards, J. N.(1983). Measuring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387-393.
- Broman, C. L.(2002). Thinking of divorce, but staying married: The interplay of race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37(1/2).
- Bhugra, D., & De Silva, P.(2000). Couple therapy across cultures. *Sexual and Relationship Therapy*, 15, 183-192.
- Bumpass, L., Martin, T. C., & Sweet, J.(1991). The impact of family background and early family background factors on disrup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12, 22-42.
- Bumpass, L., & Sweet, J. A.(1972). Differentials in marital instability: 197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 754-766.
- Chang, Y., & Lee, K. Y.(2001). Household debt and marital instability: Evidence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Journal of Family Issues*, 27, 675-691.
- Cooney, T. M.(1994). Young adults' relations with parents: The influence of recent parental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45-56.
- Cutrona, C.(1996). *Social support in couples: Marriage as a resource in times of stress*. Thousand Oaks, CA: Sage.
- Edwards, J., & Booth, A. (1976). Sexual behavior in and out of marriage: An assessment of correl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73-81.
- Edwards, J. N., Johnson, D. K., & Booth, A.(1987). Coming apart: A prognostic instrument of marital breakup. *Family Relations*, 36, 168-170.
- Elder, G. H., Conger, R. D., & Foster, E. M.(1992). Families under economic pressure. *Journal of Family Issues*, 13(1), 5-37.
- Conger, R. D., Elder, G. H., Lorenz, F. O., Conger, K. J., Simons, R. L., Whitbeck, L. B., Huck, S., & Melby, J. N. (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643-656.
- Gottman, J. M.(1994). *What predicts div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es and marital outcomes*. Hillsdale, NJ: Erlbaum.
- Gudmunson, C. G., Beutler, I. F., Israelsen, C. L. McCoy, J. K., & Hill, E. F.(2007). Linking financial strain to marital instability: Examining the roles of emotional distress and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Family Economic Issue*, 28, 357-376.
- Guilbert, D. E., & Vacc, N. A., & Pasley, K.(2000). The relationship of gender role beliefs, negativity, distancing, and marital instability. *The Family Journal*, 8(2), 124-132.
- Hannah, M. T., Tuma, N. B., & Groeneveld, L. E.(1977). Income and marital events: Evidence from an income maintenance Experi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32(6), 1186-1211.
- Heller, P. E., & Wood, B.(2000). The influence of religious and ethnic differences on marital intimacy: Intermarriage versus intramarriag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6, 241-252.
- Hahlweg, K., & Richter, D.(in press). Prevention of marital instability and distress. Results of an 11-year longitudinal follow-up study.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1-7.
- Karney, B. R., & Bradbury, T. N.(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 119, 3-34.
- Keith, V. M., & Finlay, B.(1988). The impact of parental divorce on children's educational attainment, marital timing, and likelihood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797-809.
- Kurdek, L.A.(1993). Predicting marital dissolution: A 5-year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newlyw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4(2), 221-242.
- Larson, J. H., & Holman, T. B. (1994). Premarital predictors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Family Relations*, 43, 228-237.
- Liem, R., & Liem, J. H.(1988). Psychological effects of unemployment on workers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social issues*, 44(4), 87-105.
- Lorenz, F. O., Hraba, J., & Pechacova, Z. (2001). Effects of spouse support and hostility on trajectories of Czech couples' marital satisfaction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 1068-1082.
- Mann, S. L., & Zautra, A. J.(1989). Spouse criticism and support: Their association with cop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women with Rheumatoid Arthrit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56(4), 608-617.
- Martin, T.C., & Bumpass, L. L.(1989). Recent trends in marital disruption, *Demography*, 26, 37-51.
- Matthews, L. S., Wickrama, K. A. S., & Conger(1996). Predicting marital instability from spouse and observer reports of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641-655.
- Norton & Moorman(1987). Current trends in marriage and divorce among American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3-14.
- Roberts, L. J.(2000). Fire and ice in marital communication: Hostile and distancing behaviors as predictors of marit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693-707.
- Rook, K.(1984). The negative side of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46, 1097-1108.
- Snyder, D. K.(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813-823.
- Spanier, G. B.(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3), 782-783.
- Sprecher, S., & Cate, R. M.(2004). Sexual satisfaction and sexual expression as predictors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stability. In J.h. Harvey, A. Wenze., & S. Sprecher(Eds.), *The handbook of sexuality in close relationships(pp. 235-256)*. Mahwah, NJ: Erlbaum. (Yeh, H., Lorenz, F. O., Wickrama, K. A. S., & Conger(2006) 재인용)
- Udry, J. R.(1983). The marital happiness/disruption relationship by level of marital alternat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1), 221-222.
- Weiss, (1975). *Marital separation*. N. Y.: NY. Basic Books.
- Yeh, H., Lorenz, F. O., Wickrama, K. A. S., Conger, R. D.(2006). Relationships among sexual satisfaction, Marital quality, and marital instability at midlif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2), 339-343.
- Zimmer, M. (2001). Explaining marital dissolution: The role of spouses' traits. *Social Science Quarterly*, 82(3), 464-477.

접 수 일 : 2010년 02월 26일
 심 사 일 : 2010년 04월 05일
 심사완료일 : 2010년 04월 20일